



SeMA 비엔날레 '미디어시티서울' 2014

'귀신 간첩 할머니' 키워드, 지금 여기의 '아시아'를 다시 묻다

SeMA 비엔날레 '미디어시티서울' 2014 전시 전경. 사진=안창현기자

안창현 기자 isangahn@cnnnews.com